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이벤트 '풍성'

31일까지 크리스마스 원데이클래스 · 나만의 DIY 소품 만들기 등 다채롭게 진행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31일까지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이하 라운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로는 크리스마스 원데이클래스 운영, 느린 폴라로이드 사진기, 나만의 DIY 소품 만들기,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 등이 있다.

19일 재단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원데이클래스는 24일 산타케이크 및 과일타르트 만들기, 크리스마스 랜턴 무드등 만들기 등을 지역 공예작가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라운지 인스타그램 계정(shopping_travel_lounge) 프로필 상단 구글폼을 통해 접수 중이다.

특히 이벤트 기간 내 라운지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소원트리 및 손거울 등을 직접 만들고 꾸미는 '나만의 DIY 소품만들기'를 진행하고, 또 라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SNS에 포스팅하는 방문객에게는 '느린 폴라로이드 사진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느린 폴라로이드 사진기는 폴라로이드 사진 2매 촬영 후 1장은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다른 1장은 라운지에서 전시해 1년 뒤인 2025년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주소로 배송해주는 이벤트로, 느린 우체통 이벤트와 같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전통한복 포토존, 무료 우산 및 보조배터리 대여 서비스, 짐 보관 서비스, 느린 우체통 이벤트 등도 계속 운영된다.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재단에서 발굴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신규 가맹점 J-Shop과 연계해 가맹점 방문 쇼핑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도 운영한다.

재단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라운지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쇼핑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라운지를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는 쇼핑, 여행, 라운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일반 여행정보 뿐만 아니라 짐 보관 서비스, 무인카페 및 포토존 이용, 기념품 구입 등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쇼핑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1월 30일 개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홈페이지(www.shoppinglounge.kr) 및 전화(063-283-888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수궁마루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전시실 재단장

춘향마루 · 수궁마루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국악전시실을 '춘향마루', '수궁마루'라는 새 이름으로 재단장했다.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한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하고, 국악 공연이 있는 날에는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 공연과 함께 국악전시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된 악기를 유리 벽 넘어 관람할 수 있어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하고, 민속음악을 감상, 다양한 공연 영상을 즐기며 악기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전시실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도서류 전시물은 별도의 공간에서 다양한 국악의 역사와 이야기를 전한다.

춘향마루에서는 대표 공연 중 하나인 'Victor 춘향-판에 박은 소리'의 모티브 '창극 춘향전(SP)'을 핵심 전시품으로 선보이고, '수궁마루'에는 오랫동안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 토끼와 별주부의 '수궁가'를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그려내는 홀로그램 창극으로 구현했다.

국립민속국악원 대극장 '예원당'의 양쪽 끝에 자리 잡은 국악전시실은 1999년 3월, 국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체험 사업과 연계하여 방문객 체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처음 태어나 지난 20여 년간 '즐거운 국악산책', '국악아, 방학을 부탁해', '국악은 내 친구' 등 청소년 체험객에게 낯선 국악기를 눈으로 감상하고, 우리 음악의 역사를 배우는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이주용 교수, 제2회 인문학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가 오는 2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2회 인문학 속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와, 이를 모티브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저술한 소설 '크로이처 소나타'를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음악회를 기획한 이주용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의융합형 클래식콘서트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음악과 문학의 완벽한 조화라 평가받는 톨스토이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중심으로 베토벤의 '크로이처', '유령'을 비롯해 베토벤의 실내악 작품들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주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박찬호, 첼리스트 강하연과 함께 연주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의 인문학 속 클래식 콘서트 시리즈는 2024년 K-MOOC(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에서 공개될 '쏙! 클래식(이주용 교수)' 강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아카이브 기획 전시 '흑백의 여로'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023년까지 수집된 3만8,000여 점의 유물과 기증품 가운데 아카이브 자료를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태권도가 걸어온 여정을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 '흑백의 여로'를 19일부터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개최한다.

'흑백의 여로'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혼란과 정비의 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나아가던 시대를 배경으로 태권도의 세 가지 여정을 그린다. 첫 번째로 태권도가 맨손 무예로서 9개관을 중심으로 연무하던 시절을 거쳐 스포츠화되는 여정, 두 번째는 태권도 1세대부터 2세대를 거쳐 태권도가 조직화되고 통합에 이르는 여정, 마지막으로 초창기 태권도 해외 보급과 태권도 세계화를 담았다.

이번 전시에는 태권도 역사를 보여주는 가치 높은 자료와 사진, 영상으로 첫 선을 보이는 '제5회 창무관 공수도 연무대회 포스터(1955)', 베트남 초청 태권도 시범단의 단체 사진(1959), 대한수박도회 월간지 '무예시보'(1960), YMCA 권법부 출신 홍정표 사범의 '태권도 팔괘 품새' 사진집(1967) 등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리랑' 역사 담긴 기록영상 공개

국립무형유산원, 전승공동체 종목 중 최초 기록화 사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의 기록영상을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www.iha.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종목으로는 최초의 기록화 사례다.

이에 따르면 '아리랑'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한민족의 정서가 깃든 노래다. 이번에 제작된 '아리랑' 기록영상은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유산의 기록보존과 조사·연구를 위해 1995년부터 진행 중인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국가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종목으로서 아리랑의 정의, 그 어원과 노래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기록과 음반을 비롯해 지역별 유형으로 구분한 8대 주요 악곡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기록화 영상은 온 국민이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서 아리랑의 가장 큰 특징인 다양성을 잘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아리랑' 기록영상과 함께 올해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으로 제작한 '김천농악'의 기록화 영상과 '불화장' 기록도서를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에서 무료로 공개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리랑'과 '남원농악'의 기록도서를 온라인과 수도권 소재의 대형 서점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기록도서 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전화(063-280-1506)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관련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그 가치를 국민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